

# '97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생산법인의 경영실태분석

〈본회 국제협력과〉

## 1.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 1.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개관

#### 1) 한국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80년대 후반까지 침체를 나타내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한 세계경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하는 국내기업들의 역량증대와 정부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을 바탕으로 '90년대 초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여 '94~'96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동기간('94~'96년)은 투자금액, 투자건수면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전성기를 이룬시기로, 3년간의 투자금액이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총액('96년까지)의 43.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96년에 접어들면서 계속된 경기불황 및 산업공동화

우려 등 해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 요인들로 인해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허가금액기준으로 1,001백만불에 머물러, 전년 대비 9.7% 감소를 보였으며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186백만불을 기록하였다.

'97년말 현재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허가기준으

### 〈한국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연 도	총 허가		총 투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9	134	1,508(-)	134	958(-)
'90	71	325(-)	71	313(-)
'91	70	579(78.1)	69	200(-36.1)
'92	84	252(-56.4)	83	199(-0.5)
'93	114	390(54.7)	107	347(74.3)
'94	226	777(99.2)	189	663(91.0)
'95	246	1,109(42.7)	180	679(2.4)
'96	259	1,001(-9.7)	181	186(-72.6)
'97	271	815(-18.6)	206	348(87.1)
총누계	1,475	6,755	1,220	3,894

\* (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재경부

### 〈법인별 해외직접투자 주어〉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총 허 가 (~'97년말 현재)					총 투 자 (~'97년말 현재)				
	생 산	판 매	연 구	기 타	합 계	생 산	판 매	연 구	기 타	합 계
금 액	3,658 (54.2)	1,730 (25.6)	151 (2.2)	1,216 (18.0)	6,755 (100)	2,123 (54.5)	880 (22.6)	104 (2.7)	787 (20.2)	3,894 (100)
건 수	971 (65.8)	334 (22.7)	37 (2.5)	133 (9.0)	1,475 (100)	794 (65.1)	292 (23.9)	35 (2.9)	99 (8.1)	1,220 (100)

※ ( )는 비중, 기타 법인에는 지사, 사무소 포함.

자료 : 재경부

### 〈연도별 해외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연 도	'93	'94	'95	'96	'97 (상반기)	'97 (하반기)	'97 합계
허가금액	390 (114)	777 (226)	1,109 (246)	1,101 (259)	452 (145)	363 (126)	815 (271)
투자금액	347 (107)	663 (189)	679 (180)	186 (181)	267 (113)	81 (93)	348 (206)

※ ( )는 투자건수.

자료 : 재경부

로 1,475건, 6,755백만불이며 제조업 전체(6,713건, 14,924백만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22.0%, 금액 규모로는 45.3%에 달하고 있다.

투자기준으로 보면 '97년말 현재 1,220건에 3,894백만불로 제조업 전체 실적에서 건수로는 23.5%, 금액으로는 42.2%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법인이 허가 및 투자를 기준으로 건수, 금액면에서 50%대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판매법인이 20%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연구개발법인은 허가나 투자를 기준으로 건수, 금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지역주의에 따른 시장 접근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해외 현지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기타법인의 진출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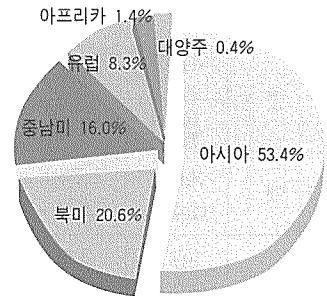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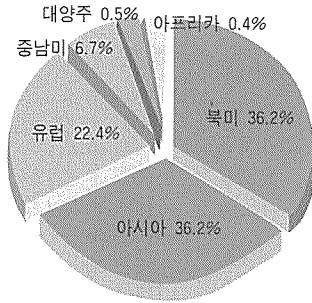
#### 2) '97년도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97년도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경기위축 및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국내기업 자금사정 악화로 크게 위축되어 허가금액기준으로 96년 대비 18.6% 감소한 815만불에 그쳤으며,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한 97년 하반기를 보면 허가금액의 경우 97년 상반기에 비해 19.8% 감소하였고, 투자금액의 경우는 69.5%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97년에도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의 주도하에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외환위기에 따

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해외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한 기업들이 많아 건당 투자규모의 경우 허가금액 기준으로는 3백만불로 '96년대비 22.3% 감소하였으며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작년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쳐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현황>



2. '97년도 전자산업의 해외직접 투자 동향

1) 지역별 투자 현황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북미,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97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각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북미지역의 경우 전체의 36.2%(2,442백만불), 아시아지

역의 경우 33.8%(2,285백만불), 유럽지역의 경우 22.4%(1,516백만불)를 차지하고 있다.

'97년도 지역별 투자 특징을 살펴보면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

<지역별 해외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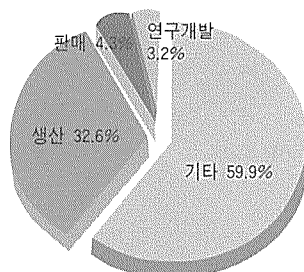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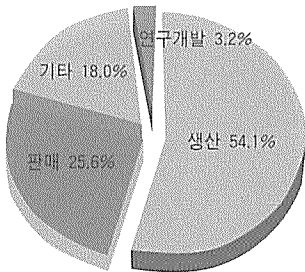
(단위 : 천불, 건)

연도 지역별	~'89	'90	'91	'92	'93	'94	'95	'96	'97	누계
아시아	96,819 (52)	187,259 (39)	134,950 (48)	157,786 (53)	228,081 (74)	272,013 (171)	544,302 (155)	228,944 (157)	435,230 (154)	2,285,384 (903)
북미	1,073,709 (43)	29,792 (17)	401,892 (12)	18,888 (13)	49,408 (20)	312,470 (34)	234,232 (46)	154,391 (54)	167,562 (79)	2,442,344 (318)
유럽	306,537 (27)	60,375 (11)	41,696 (10)	72,739 (17)	108,127 (16)	171,718 (12)	210,887 (31)	476,847 (29)	67,332 (22)	1,516,258 (175)
중남미	15,973 (6)	35,865 (2)		3,000 (1)	1,769 (3)	17,366 (6)	114,410 (8)	135,650 (14)	130,095 (8)	454,128 (48)
아프리카	1,179 (6)	2,112 (1)			2,461 (1)	100 (1)	2,300 (2)	5,152 (4)	11,279 (3)	24,583 (13)
대양주	13,721 (5)	9,306 (1)				3,000 (2)	3,148 (4)	37 (1)	3,285 (5)	32,497 (18)

\* 허가금액 기준, ( )는 건수.

자료 : 재경부

<법인별 투자현황>



만불)의 경우도 45.9% 증가한 130백만불로 나타났다.

투자전체를 기준으로 비중은 낮으나 아프리카와 대양주지역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신시장공략을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엿볼 수 있다.

2) 법인형태별 동향

우리 전자산업의 법인형태별 투자동향을 보면 생산법인의 경우 '97년말 현재 3,657백만불, 971건으로 각각 54.1%,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법인의 경우 1,730백만불 334건으로 각각 25.6%, 22.6%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업체가 생산, 판매법인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어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97년도 법인형태별 특징을

한 투자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의 경우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투자비중과 허가금액이 24.2%, 234백만불인데 비해 '97년중에는 20.6% 168백만불로 감소되었고 유럽의 경우도 29.7%, 286백만불에서 8.3%, 67백만불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

는 과거 선진국에 대한 대형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들 지역의 투자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한 아시아지역은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허가금액(352백만불) 대비 23.7% 증가한 435백만불을 기록했으며 중남미(89백

<전자산업 법인별 해외투자 동향>

(단위 : 천불, 건)

연도 지역별	~'89	'90	'91	'92	'93	'94	'95	'96	'97	누계
생 산	257,600 (51)	254,538 (41)	508,654 (47)	83,680 (59)	334,373 (78)	459,452 (164)	597,981 (168)	795,500 (176)	265,648 (187)	3,657,426 (971)
판 매	1,027,053 (79)	58,445 (20)	64,533 (17)	28,552 (20)	42,610 (28)	141,975 (43)	280,971 (54)	50,876 (45)	35,299 (28)	1,730,314 (334)
연구개발	21,000 (2)	11,476 (9)	4,311 (4)	37,623 (4)	5,494 (3)	41,035 (9)	2,000 (1)	2,500 (1)	26,053 (4)	151,492 (37)
기 타	202,285 (2)	250 (1)	1,040 (2)	2,558 (1)	7,369 (5)	134,205 (10)	228,327 (23)	152,145 (37)	487,783 (52)	1,215,962 (133)

\* 허가금액 기준, ( )는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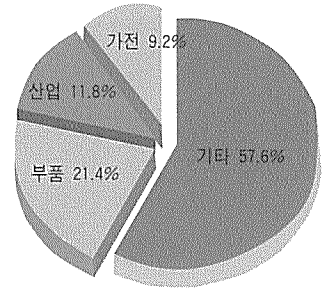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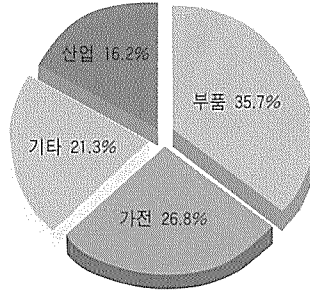
자료 : 재경부

살펴보면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생산, 판매법인 진출이 급격한 감소세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투자비중과 허가금액이 64.2%, 618백만불이었으나 97년 중에는 32.6%, 266백만불로 감소하였고 판매법인의 경우도 16.4%, 158백만불에서 4%, 35백만불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과 기타서비스분야의 진출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허가금액기준(15백만불) 대비 71.6% 증가한 26백만불, 기타법인(172백만불)의 경우는 184.3% 증가한 488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부분별 투자현황>



3) 부분별 동향

'9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의 부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품부문이 전체 허가금액기준으로 35.7% (2,412백만불), 건수로는 44.4% (655건)를 차지하여 가장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가전, 산업, 기타부문의 경우 투자비중(허가금액기준)을 살펴보면 각각 26.8%, 16.2%, 21.3%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97년도 부문별 투자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부품, 산

<한국전자산업 해외투자현황(부문별)>

(단위 : 천불, 건)

연도 지역별	'89	'90	'91	'92	'93	'94	'95	'96	'97	누계
가 전	643,808 (69)	112,243 (21)	425,921 (10)	71,289 (18)	74,622 (36)	102,455 (52)	199,598 (49)	104,037 (53)	74,747 (46)	1,808,720 (354)
산 업	91,477 (22)	12,363 (10)	60,145 (13)	31,690 (16)	36,968 (21)	299,942 (53)	290,810 (59)	177,233 (46)	96,322 (69)	1,096,950 (309)
부 품	508,406 (31)	184,914 (30)	87,199 (40)	109,253 (45)	270,968 (52)	227,355 (102)	274,157 (110)	575,421 (127)	174,704 (118)	2,412,377 (655)
기 타	264,247 (12)	15,189 (10)	5,273 (7)	40,181 (5)	7,288 (5)	146,915 (19)	344,714 (28)	144,330 (33)	469,010 (38)	1,437,147 (157)

\* 허가금액 기준, ( )는 건수.

자료 : 재경부

업, 가전부문이 급격한 감소세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부품부문의 경우,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투자비중과 허가금액이 37.3%, 359백만불이었으나 '97년 중에는 21.4%, 175백만불로 감소하였고 산업부문의 경우도 26.6%, 256백만불에서 11.8%, 96백만불로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반면 기타부문의 경우는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허가금액(212백만불) 기준으로 121.2% 상승한 469백만불, 건수(27건)로는 42.5% 증가한 38건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다른부문에 비해 기타부문이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다른부문에 비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 중심의 정보통신관련 기간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투자규모의 대형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4) 투자규모별 동향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투자규모별 동향을 살펴보면 '97년말 현재 만불~십만불미만이 11.2%인 165건, 십만불~백만불미만이 46.9%인 691건, 백만불~천만불미만이 33.2%인 490건, 천불~1억불미만이 7.5%인 111건, 1억불이상의 경우 0.7%인 11건으로 전체 허가금액을 기준으로 십만불~백만불미만의 투

자규모가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97년도의 투자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94~'96년) 평균 투자규모별 건수를 기준으로 십만~백만불미만과 백만불~천만불미만의 경우가 각각 21.1%, 12.5% 증가한 149건과 84건으로 나타나 동 투자규모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십만불미만의 경우는 23.3% 감소한 23건을 기록하였다.

## II. 전자산업 해외투자 경영실태 조사분석

### 1. 현지법인 현황

#### 1) 종업원수

현지 종업원 수는 전체적으로 300명이상 500명미만이 전체 응답 133개 업체중 25개업체(1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명이상 300명미만이 19개 업체(14.3%)였으며, 500명이상의 경우는 55개업체(41.4%), 2,000명이상의 경우도 10개업체(7.5%)가 파악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300명이상 500명미만이 응답업체 90개중 10개업체였으며, 다음으로 500명이상 700명미만이 8개업체, 200명이상 300명미만이 8개업체 순이었고, 인니와 말련의 경우에는

2,000명이상 업체가 2개업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중남미 지역은 응답업체 21개중 멕시코에 1,000명이상 업체가 4개업체, 2,000명 이상이 2개업체로 아시아 지역에 비해 종업원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종업원수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 660명(인니 784명, 중국 648명, 인도 618명)선이었고 북·중남미 지역은 899명선에 이르렀으며 전체평균은 674명 선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 파견직원수는 아시아가 9명, 북·중남미가 12명, 유럽이 9명 선으로 나타나 북·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인 파견직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평균은 9명선으로 현지 종업원 평균 674명과 비교할 때, 한국인 파견 직원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그나마 현지인 관리가 비교적 쉽지만, 문화 및 환경이 전혀 상이한 북·중남미, 유럽지역은 현지인 관리가 아시아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2) 투자금액 현황

해외생산공장 유효 응답업체 133개의 총 투자금액은 50억 4,800만불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92

개업체 18억 3,500만불, 북·중남미지역이 20개 업체 25억 6,500만불, 유럽지역과 기타 지역이 21개업체 6억 4,700만불로 나타나 북·중남미지역의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에 7억 5,800만불, 말련에 6억 9,700만불, 인니에 1억 3,800만불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남미 지역은 미국에 20억 2,400만불, 멕시코에 4억 1,100만불, 브라질에 1억 3,000만불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은 독일 2억 7,400만불, 영국 1억 6,600만불, 프랑스 7,300만불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현지법인경영실태

### 1) 매출액 추이

### ■ 전반적인 추이

해외투자 생산업체들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96년 69,597천불, '97년 82,803천불, '98년 99,271천불(예상)로 집계 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96년의 경우 평균 매출액 69,597천불중 제3국 수출이 56.9%인 39,635천불, 현지판매가 25,755천불로 37.1%, 국내 반입이 6.0%인 4,207천불로 나타났다.

'97년도의 경우 제3국 수출이 56.3%, 현지판매가 37.6%, 국내 반입이 6.1%로 나타났으며 '98년도의 경우는 제3국 수출이 45.6%, 현지판매가 47.6%, 국내 반입이 6.8%로 예상된다.

제3국 수출을 세부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97년을 기준으로 EU 37.3%, 미국 20.7%, 일본

8.5%, 기타 33.5%를 차지해 제3국 수출에 있어 유럽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지역별 추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97년 기준 아시아의 경우에는 제3국 수출이 전체의 57.1%, 현지판매가 29.1%, 국내반입이 13.8%로 나타나 전체지역의 국내 반입분 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내 반입분이 훨씬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제3국 수출 중 대미 수출이 20.7%, 대EU 수출이 37.3%, 대일본 수출이 8.5%, 기타지역이 33.5%로 나타나 제3국 수출 중 대EU 수출 비중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부 국가별 매출액 추이를 보

## 〈매출액 및 업체당 평균 매출액〉

(단위 : 천불, %)

연 도	응 답 업체수	제 3국 수출					현 지 판 매	국 내 반 입	합 계
		미 국	E U	일 본	기 타	합 계			
'96	68	705,413 (10,373.7)	992,051 (14,589)	224,155 (3,296.4)	773,594 (11,376.4)	2,695,213 (39,635.5) [56.9]	1,751,364 (25,755.4) [37.1]	286,078 (4,207) [6.0]	4,732,655 (69,597.9) [100.0]
'97	72	694,633 (9,647.6)	1,250,782 (17,371.9)	285,569 (3,966.2)	1,124,716 (15,621)	3,355,700 (46,606.9) [56.3]	2,242,086 (31,140) [37.6]	364,057 (5,056.3) [6.1]	5,961,843 (82,803.4) [100.0]
'98 예정	75	796,621 (10,621.6)	1,162,733 (15,503.1)	445,926 (5,945.7)	991,303 (1,321.7)	3,396,583 (45,287.7) [45.6]	3,545,669 (47,275.6) [47.6]	503,083 (6,707.8) [6.8]	7,445,335 (99,271.2) [100.0]

\* ( )는 업체당 평균금액, [ ]는 차지하는 비중

면 중국의 경우에는 대 EU 수출과 기타 지역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미 수출은 12%를 차지했고 국내 반입은 전체 매출액의 21%를 차지해 여타 국가 보다 국내 반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중남미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중 16.0%가 대미 수출, 대 EU가 10.1%, 대 일본이 9.0%, 기타지역이 8.9%로 나타나 수출시장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중 65.3%가 대EU 수출, 10.2%가 기타지역, 0.9%가 대미 수출로 나타나 대부분 업체가 유럽시장을 겨냥하여 투자한 것이 입증되었다.

지역별 매출액의 추이 조사결과 북·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업체들의 매출액은 미국, EU, 일본 등 수출지역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현지 판매 비중도 북·중남미 지역의 비중이

여타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원·부자재 조달 현황

### ■ 전반적 현황

현지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6년의 경우 1개 업체당 평균 원·부자재 조달액은 44,033천불 규모였으며 이중 현지조달이 27,250천불인 61.9%, 한국수입이 12,871천불인 29.2%, 제3국 수입이 3,912천불인 8.9%로 나타났다.

'97년의 경우 1개 업체당 평균 원·부자재 조달액은 53,007천불 규모로 현지조달 61.2%, 한국수입 30.9%, 제3국 수입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98년(예상)의 경우에는 7,773천불 중 현지조달 63.6%, 한국수입 29.8%, 제3국 수입이 6.6%로 나타나 한국수입과 제3국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현지 조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 지역별 현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 '96년 기준 한국수입이 60.7%, 제3국 수입이 21.5%, 현지조달이 17.8%, 북·중남미의 경우에는 현지조달이 91%, 한국수입이 7.7%, 제3국 수입이 1.3%, 유럽은 한국수입이 74%, 현지조달이 6.9%, 제3국 수입이 0.2%로 나타나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업체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7년에는 아시아의 경우 한국수입이 57.8%, 현지조달이 25.4%, 제3국 수입이 16.8%, 북·중남미의 경우 현지조달이 83.7%, 한국수입이 15.1%, 제3국 수입이 1.2%, 유럽은 한국수입이 59.9%, 제3국 수입이 30.2%, 현지조달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부자재 조달 현황>

(단위 : 천불, %)

연 도	응 답 업체수	제 3국 수출					현 지 판 매	국 내 반 입	합 계
		미 국	EU	일 본	기 타	합 계			
'97	48	34,674 (722.4)	11,336 (236.2)	72,381 (1,507.9)	85,774 (1,787)	204,165 (4,253.4) [7.9]	1,588,532 (33,094.4) [61.2]	804,655 (16,763.6) [31.0]	2,597,352 (54,111.5) [100.0]
'98 예정	48	39,280 (818.3)	13,171 (274.4)	84,692 (1,764.4)	114,140 (2,377.9)	251,283 (5,235.1) [6.6]	2,420,764 (50,432.6) [63.6]	1,136,912 (23,685.7) [29.8]	3,808,959 (79,353.3) [100.0]

\* ( )는 업체당 평균 매출액, [ ]는 차지하는 비중



3. 신규 해외투자 계획

설문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해외투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응답 133개사 중 신규 해외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10개사로 나타나 우리 전자산업 역시 IMF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10개사의 투자 계획 국가를 세분화해 보면 중국이 6건, 필리핀 1건, 태국 1건, 터키 1건, 우즈벡 1건으로 나타나 중국이 여전히 전자업체들의 투자유망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유럽지역도 내수시장 확보 차원에서 주요 관심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III. 시사점

이번 설문조사에 의거한 해외 생산공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신규 해외투자 계획>

지역	대상국가	규모(천불)	투자시기	품목	신규투자국가 선택이유
아시아	중국	14,400	'98. 8	브라운관 및 모니터용 글라스 벌브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요소 활용 가능(삼성코닝)
	필리핀	65,000	'98 하반기	MLCC, Chip-Resistor, 전해콘덴서, MLB	장치산업 인프라 상대적 양호(삼성전기)
	중국	7,600	'98. 12	모니터	제조 경쟁력 확보 내수시장 확보(현대)
	중국	3,000	'99	FBT	내수시장 확보(두고)
	중국	6,000	'99	V/Tape	값싼 노동력 활용 및 잠재력 시장 확보(SK)
	중국	500	'98. 8	Focus Pack	가격 경쟁력 제고(정화)
	태국	2,200	'99. 6	DY, FBT, CORE	동남아 및 중국시장의 성장 잠재력 및 향후 지역별 경제 블록화에 대응 교두보(삼화)
	중국	3,000	'99	.	.
유럽	터키	50,000	'99 상반기	에어콘	내수시장 선점(LG)
	우즈벡	4,800	'98. 8	CTV, VCR, RAC V/C, ECRa	중앙아시아 5개국 생산 거점 확보, 내수시장 선점(SS)

첫째, 세계화 되어 가고 있는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우리 전자업체로서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업체의 해외공장의 생산활동은 국내 모기업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제 우리 산업·경제의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해외투자만으로 산업공동화를 논하는 것은 수입에 의한 효과만을 보고 무역의 효과를 논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므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효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의 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도 이제까지의 자유화를 시행하는 소극적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등에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선진국에 치우쳐있는 해외직접투자의 지역적인 다변화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 전자업체도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단순한 생산 이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전략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전자업체로서는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잘 알려진 잠재적인 투자지역의 선정과 확보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자업체로서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노하우나 정보를 관련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이러한 협조체제는 전자업체의 해외생산법인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본 조사에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 해외생산법인간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문화권에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또한 신규투자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대한 경영노하우를 전자업체가 공유할 수 있을 경우 그만큼 비용과 위험이 낮아질 것이다.

넷째, 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전자업체의 해외투자에 있어 해외생산공장의 비중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즉 해외생산 공장과 모기업과의 무역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절차 간소화 등에 의한 기업

간 거래과정의 원활화는 물론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우리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할 수 있는 통상외교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생산활동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빠른시일내에 공식적인 조사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투자 관련 내용의 경우 기업의 경영비밀에 속하므로 매우 제한적인 접근만이 가능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해외생산공장의 생산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전자 4사를 포함하는 통계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OECD,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이 세계화되고 있는 기업의 활동과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해외투자에 대해 통계의 작성기준과 이러한 통계의 축적 및 정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해외투자관련 법률 및 조직에서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